

제19회 세계금연의 날 보건복지부 수상



송영숙 (한국산업간호협회 제2부회장, 서울우유 용인공장 보건관리자)
최숙경 (전 서울지부장, 서울시철도공사 보건관리자)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2006년 6월 7일 (수)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연관련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세계 금연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담배는 어떤 형태든, 어떻게 위장하든 치명적이다(Tobacco: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라는 금번 “세계금연의 날” 주제처럼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매년 5백 만 명이 사망하고, 우리나라에서만도 연간 4만 명 이상을 사망케 하는 치명적인 담배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 계 각 층에서 금연운동을 전개해 온 유공자와 기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하였다. 특히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유공자 중 두 명이 산업간호사였다. 현재 한국산업간호협회 제2부회장인 송영숙 서울우유 용인공장 보건관리자, 전 서울지부장을 역임한 최숙경 서울시철도공사 보건관리자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다. 금번 화제의 인물에 두 선생님을 동시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올해로써 산업간호 23년차인 송영숙 제2부회장. 3교대/일 근무 중 막연히 밤 근무를 하지 않고 주말에 남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근무조건이라는 생각에 환상을 가지고 선택한 산업간

호사의 길. 그러나 보건담당자의 직무가 근로자들조차 얼굴은 물론 이름도 모르는 법적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비독립적이고 비창의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당시 산업간호사인 보건담당자의 업무는 공장장실의 부속실에 위치한 의무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투약이나 처치정도를 위해 하루 종일 우두커니 기다리는 일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임상으로 복귀하겠다고 결심을 굳혀갈 무렵, 문득 조직 내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차기 후임자도 이와 같은 업무로 인해 힘들어 할 것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일단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다른 기회를 찾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곧 기회는 왔다. 당시 조합장님께서 어렵게 면담을 신청하였고 면담이 실현된 것이다. 조합장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사전에 준비한 업무보고를 하며 '전화를 받고 손님을 맞이할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근로자를 보살피고 그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오로지 산업간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 인력인 산업간호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조직의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임을 큰 용기를 내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였다. 결과는 획기적이었다. 독립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M.F 이후 어느 날 채용 시 보건교육을 통해 만난 한 청년 근로자의 사연.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하여 졸업을 못 하고 입사한 청년 근로자는 입사 후 근무성적도 좋고 주변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채용 시 보건교육을 받은 후 건강관리실에 자주 찾아오던 청년에게 학력이 최고는 아니지만 사회에서의 고등학교 졸업장은 삶에 있어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였다. 어느 날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와 설득이 안 되던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준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고,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산업간호사의 길에 들어선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능력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가끔씩 적당한 자신감과 긴장을 느끼기 위해 '나는 직장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직장의 건강관리실을 아웃소싱 하는 운영자이며 주인'이라는 새로운 발상과 시도를 해 본다. 내게 맡겨진 근로자들은 직장동료가 아니라 감동시키고 감격시켜야 할 고객들이기에 좀 더 차별화 된 서비스와 다양한 접근방법 등을 통해 그들에게 항상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러한 유쾌한 발상의 전환이 근로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믿는다. 직장 금연운동도 이러한 발상을 근거로 시작되었고 전사업장으로 확산되어 열매를 거뒀다.

이제 더 이상 근로자는 일방적인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 되어있으며 건강관리실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고마워하고 감동받지 않음에 서운해 해서는 안 된다. 보건관리자는 사내 전자 게시판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하여 일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 능숙해져야 하며 더 이상

건강관리실에서 안주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방재본부 안전보건팀 소속의 최숙경 보건관리자(대리)는 병원경력 6년, 사업장인 서울도시철도공사 11년, 전 한국산업간호협회 서울지부장의 경력을 소유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산업간호의 재원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설립 11년 된 회사로, 20~30대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보건관리자가 9명이 있으며, 모두 한곳의 근로자만 관리하지 않고 많은 곳으로 직원들이 분산되어있는 회사의 특성상 섹터별로 분류하여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 최숙경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본사와 경영개발원 직원들을 포함하여 65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장이라는 최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료인이다. 따라서 그 사업장의 특성이나 환경,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등은 보건관리자가 가장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사업장 여건이 다를지라도 '근로자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라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보건관리자로서 시대에 부응하여 사업장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보건관리 업무를 발굴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질을 발휘하였다.

지하작업장과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각각 지상과 지하에 흩어져있는 특수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공사 9명의 보건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업장순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순회방문을 통하여 근로자 건강 상담, 각종 건강 체크, 작업장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등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적이고 중점적인 사업으로 '사업장내 금연운동'을 2001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전 작업장이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사 당시 근로자들의 산업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인식은 '상비약이나 주고 가벼운 상처치료나 해주는 한없이 편한 보직'이었다. 서울지부장 시절 회원들이 속한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대우 역시 천차만별로 열심히 일한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냥 두는 식'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보건관리자 스스로 변화하여 직업정신이 투철한 전문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는 조직 내 모든 사람의 관심과 격려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즉, 개인이나 일개 부서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전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조직원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 보건관리

자가 하는 일들이다. 제일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 큰 비교적 정직한 곳이기 때문이다.

수상의 영광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기쁘지만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보건관리자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격려의 상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칠 생각이며 곳곳하게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바란다는 두 분 선생님을 뵈면서, 최숙경 선생님의 좌우명인 伏久者 飛必高(복구자 비필고, 엎드림이 오래인 새는 나는 것도 반드시 높다)가 가슴깊이 울려온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이에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작한 일을 끝까지 했느냐' 그녀가 감명 받았던 어느 책의 한 구절처럼 그네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